

“한 사람의 벚, 모두의 벚”

www.hanbeot.org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4. 8/9

vol.304



미얀마 어린이합창단 10월 초청



'한가위 보름달처럼,
등글게,
너그럽고
따뜻하게'

미얀마 어린이합창단 10월 초청



초청일정 10월 25일~31일

지휘봉사자 민성숙 선생의 활약에 힘입어 어린이합창단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춘천과 원주, 강릉의 각계 인사와 지역신문사가 항공료와 강원도 공연, 체류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서울 공연과 관광, 체류비는 한뼘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반겨주세요.

미얀마에 희망의 꽃다발을!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암담한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정부군과 소수민족·시민군 간의 내전이 계속되는 데다, 외국기업 철수로 달러 가치와 물가가 300%나 치솟아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어린이합창단의 한국공연 뉴스는 미얀마의 희망을 북돋는 꽃다발이 될 것입니다.



호적이 없어 못 오는 합창단원

합창단원 27명 중 6명은 호적이 없어 여권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울고불고, 지휘자 선생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현대 이 소식을 접한 양곤 교육청이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세 명이라도 여권을 만들어 데려오면 좋겠는데…….

◀◀◀ 미얀마 전통 춤 예술인 공연

미얀마의 민속 악기와 춤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주변 여러 나라 전통예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합창단 초청시 미얀마의 저명한 무용가의 전통춤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서울 공연에 모십니다



어린이합창단 초청은 특별히 휠체어 날개달기와 미얀마방정환기금 회원들이 오랫동안 미얀마를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오시어 아이들의 노래에 박수 보내주세요. 합창단이 사는 양곤의 빈민구역 '달라'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미얀마 예술인이 출연하는 전통 춤 공연도 있습니다.

모십니다

이원문화센터

(지하철 마포역 한신빌딩)

2024년 10월 26일(토) 오후 4시~5시 30분

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불교방송국 옆 한신빌딩 1층
(주차 : 맞은편 마포 공용주차장 이용)

초청 일정

- 10월 25일(금) 도착.
- 26일(토) : 서울 관광 및 이원문화센터 공연.
- 27일(일) : 만리현감리교회 주일 예배 공연
- 28일(월) : 원주시청 공연장
- 29일(화) : 강릉 관동중학교
- 30일(수) : 춘천 상상마당
- 31일(목) : 출국

어린이합창단 초청을 도와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 만리현감리교회 : 25·26일, 교회 손님방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 경산복지재단 최재화 이사장님 100만원
- 조정복(고 최준수 목사 부인) 10만원
- 서판임(미얀마방정환 회원) 1만원
- 이민희(미얀마방정환 회원) 5만원
- 양 숙(전 소록도 간호조무사) 5만원

사람이 풍경이다

이진영

아래 글은 한빛의 외상장애인 숙박여행에 동행한 이진영(장애인) 작가의 글입니다.



여름의 문턱 6월. 화창한 날씨 속 온통 초록으로 물든 산야를 달린다. 목적지는 강원도 최북단 고성. 서쪽은 금강산, 무산, 향로봉을 연결하는 태백산맥의 분수령이 험준한 산악을 이루고, 옆구리에 동해를 거느린 곳이다. 장거리 여행에 지친 일행을 반기는 건 푸른 바다 위의 거진 '백섬'. 전망대에 올라 거칠게 바위를 때리는 파도를 본다. 지울 수 없는 푸른 명을 안고도 파도를 피해갈 수 없는 바위의 운명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저녁놀에 물든 몽환적 바다를 두고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건 일출을 보고자 한 때문. 새벽, 숙소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광경이 펼쳐지다니! 여행 이틀째, 푸른 바다로 썰하니 부서지는 햇살에 취해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휠체어가 혼자 천천히 움직여 바다로 향한다. 의아해 다가가니 일행 중 심한 뇌병변장애 남자분이 누워서 휠체어 조정기를 입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노상 누워서 살아온 사람이 이 장대한 아침바다를 마주하는 심경은 어떠할까?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맡겨졌다가 얼마 전 나와 활동보조사 도움을 받으며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남들과 다른 힘겨운 삶이었을 텐데 소년처럼 눈빛이 초롱하다. 몸이 굳어 혼자 할 수 있는 동작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입으로 휠체어를 조종하고 컴퓨터로 세상과 교류한다고 한다.

누구의 인생이든 신(神)이 머물다 간 순간이 있다고 한다. 이번 여행은 보랏빛 라벤더 향기 자욱한 '하나라벤더팜'과 웅장한 '울산바위'도 기억에 남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도 신이 머문 순간인 듯 평화롭고 밝은 모습이 담긴 그분이 더 진한 기억으로 남는다. 사람이 풍경이었다!

고마워요, 미용봉사



허정순, 조기택 부부

한동안 뜸하시던 부부 회원이 미용 봉사를 해주시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두 분은 바라던 교회 성악 레슨 받느라 짬을 내기 힘들었다고. 덕분에 우리 이용인들의 머리를 깔끔하고 멋지게 꾸며 주셨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재능기부 해주신 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말 개학

조금씩 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용인들의 학교가 개학해 다시 바쁜 일과를 보냅니다. 깔끔한 모습으로 바뀐 우리 이용자들, 잘 생겼네요!

보내주신 음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6월 17일 ~ 8월 16일)

[개인]

김도연B(후원자) 식재료, 김영신(후원자) 계란, 수박, 김정훈(후원자) 간식, 박주용 부모님(후원자) 식재료, 열무김치, 채소, 부흥세탁소(후원자) 식재료, 아이스크림, 여일구(후원자) 빵, 원석법 지인(후원자) 복숭아, 익명(후원자) 계란, 깍두기, 수박, 돼지고기, 정은숙(후원자) 휴지, 물티슈, 조용현 어머니(후원자) 수박, 참외, 진 권 부모님(후원자) 식재료

[단체]

당가원 복음밥, 자장면, 롯데카드 생활용품, 식재료, 마포경찰서 선스틱, 마포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쿠키, 마포푸드뱅크 바나나, 빵

금연클리닉, 캠페인 가져



덕양구보건소와 연계하여 주민 금연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14분이 참여하여 상담을 받았고 니코틴 패치와 껌과 비타민 등 금연보조제를 드렸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주민에게는 소식지와 비타민을 나누어드리며 금연캠페인을 펼



쳤습니다. 바쁜 중에도 달려와 주신 덕양구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속마을을 부탁해’ 봉사단 발족



지난 7월, 우리 복지관에 ‘지속마을을 부탁해’ 봉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이날 발족식은 지난 4월부터 주민 6명이 7차례 모임을 가지며 준비한 결실로, 임명장 수여에 이어 활동 선서를 외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



어서 봉사단의 이름을 정하고, 어떤 봉사 활동을 펼칠지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속마을을 부탁해’ 봉사단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센터 최초의 신나는 2박 여행



강화도 풀 빌라로

여름이면 숙박여행을 가곤 했지만 늘 1박 2일이라 짐 풀고 좀 놀아볼까 하면 곧바로 짐 싸 돌아오기 바빴다. 그러다 이번엔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며 처음으로 2박 여행을 시도했다. 장소는 강화도의 키즈 풀 빌라. 전에 한번 이용했을 때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 수영과 노래방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곳. 비용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돈 걱정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다.



도착하자마자 모두 “우와!”

노래방, 수영장, 게임기, 키즈놀이터, 실내 바비큐장을 갖추어진 곳이라 더 바랄 것 없다. 자, 이제 놀일만 남았다. 첫날은 과거로 떠나는 과자 박물관. 하나 같이 “어! 이거 어렸을 때 먹어봤어요.” 라며 즐거워 한다.

여행의 꽃 2일차.

떠나기 전부터 수영장에서 종일 방방 떠다닐 생각이었으나, 이게 웬걸! 봉사자들이 힘에 부쳐 찢찢맨다. 1:1로 이용자를 물속에서 안고 받쳐주려니 힘들 수밖에. 중간 중간 자양강장제를 들이켜기 바쁘다. 노래방에서 절대 마이크를 놓지 않는 재호 씨와 운환 씨의 콘서트 시작. 우리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에 직원과 봉사자들은 목이 설 때까지 따라하며 파이팅을 외쳤다. 저녁엔 삼겹살과 소고기 바비큐. 먹는 일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마이크를 안 놓으려는 운환 씨를 억지로 태워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2박 여행을 무사히 마쳤다.

자원봉사 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

예진, 김루비, 박시연, 구주연, 박수빈

□ 후원품 푸드뱅크: 빵 60개, 도너츠 10박스

노인성 난청인에게 기쁜 소식



말을 알아듣기 힘든, 귀가 어두운 노인성 난청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값비싼 보청기는 오랜 시간 청각을 적응시켜야 하고 주변 소음을 없애지 못합니다. 또 시중에 넘치는 이어폰식 음성증폭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음성을 글자로 바꾸어주는 AI 안경이 개발되었습니다. 말소리를 실시간 글자로 옮겨

주며 10개 국어로 번역도 되는데, 실내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가격은 170만원으로 비싸지만 유용성이 입증되어 큰 인기입니다.

제품 이름 : <씨사운드 스마트 안경>

인터넷으로 제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백진양 010-3359-2458

침대에서 화장실 이동기기



침대에 누운 환자나 중증장애인 돌보기의 큰 어려움은 침대에서 화장실 가기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사진의 제품은 지금까지 개발된 보조기기 중 가성비가 제일 좋아 추천합니다. 침대의 환자가 화장실 변기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36만~99만원. 마침 새 제품을 기증받았습니다.

필요한 분에게 저저 빌려 드립니다.

감격의 외상장애인 가족 여행



6월부터 시작한 외상장애인 가족 여행은 8월 말까지 6차례에 걸쳐 장애인 18명과 가족 23명, 모두 41명이 다녀왔습니다. 생전 처음 여행을 해봤다는 중증장애인의 감회에 울컥했고, 이분들에겐 여행이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에 모두 손을 모았습니다.

상반기 코스

코스 1 : 설악산 케이블카→ 묵호 해랑 전망대와 스카이웨이→ 옥계 여성수련원(숙박) → 망상해수욕장
→ 삼척 용골촛대바위→ 정동진 선쿠르즈

코스 2 : 거진 백섬→ 고성 전망대→ 금강산 콘도(숙박)→ 하늬라벤더 팜→ 울산바위



11월까지 9차례 더 가져

외상장애인 가족 여행은 9월부터 11월까지 9차례 더 가집니다. 가을에는 지리산, 서해안 격포 코스도 있습니다. 외상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가 심해 여행 경험이 없는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여행을 외면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사는 형편에 비해 유독 장애인 여행에 인색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정부 보조 없이는 장거리 여행에 나설 꿈도 못 꿉니다. 비싼 장애인 차량을 빌려야 하고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극히 드뭅니다. 외상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가 한벳이 개조한 15인승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행은 누구에게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겐 어찌다, 운 좋게 얻는 생애의 기회일 뿐입니다.

중고 유아차 미안마 기증 재개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유아차 기증이 재개됩니다. 특별히 연예인 황기순 씨가 지난 8월 월미도와 남대문 시장에서 벌인 거리 모금액 일부를 유아차 기증에 기부하기로 했고, 한벗은 같이가치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참여해주세요.

클릭만 한 번으로 300원 기부

검색창에 **같이가치**를 치면 홈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 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금함은?>이 보임. 이곳에서 <아동>을 선택하면 여러 모금함이 나옴.
- ② 이 중에서 <내 아이가 타던 유모차 미안마 장애아동에게>라는 모금함을 선택해
- ③ ♡ 에 클릭하고 댓글 '좋아요' 와 공유를 클릭하면 300원이 자동 기부됩니다.

최악의 더위에 에어컨보다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특별기부금을 보내오신 분

- 윤동령 교수님 : 때마다 큰돈을 기부해주시는 서울장신대 교수님 100만원
 이형재 님 : 전립선암 투병 중에도 한벗 46주년 기념 축하금을 보내주셨네요. 50만원
 김경미 님 : 놀랍게도 특별기부금을 매월 보내주십니다. 6월, 7월 각 10만원
 박하나 님 : 재단본부와 날개달기에 각 5만원을.
 백진양 님 : 동전저금통 기부 89,100원

새 정기기부회원으로 등록해주신 분

- 한충길 님 : 한벗의 어른, '81년 소록도에 만난 인연을 지금까지 지켜주십니다.
 엄해경 님 : 주간보호실 이용자 어머니님. 방정환기금과 재단 정기기부회원 등록해주셨네요!
 오남숙 님 : 한벗 여성회원. 방정환기금 기부를 다시 시작해주셨습니다.
 윤남일 님 : 반갑습니다. 왕년의 이동봉사회원이십니다.



무더웠던 여름 보내고 추석을 맞이합니다 님의 가정에 웃음꽃 만발하시기를-

2024.6월~7월 입금내역. ()안은 개월 수

한빛재단 <미국 텍사스 교민 기부금(\$4,210)/7월, 8월>

달러 : 계 \$3,000		킬린 : 계 \$1,210	
김애신 \$2,000	아리 \$10(2)	고사라 \$20(2)	배경재 \$40(2)
김윤원 \$200(2)	이안 \$10(2)	고향미 \$20(2)	백 수산나 \$30(2)
장덕환 \$100(2)	루빈 \$10(2)	김은희 \$20(1)	양경자 \$20(2)
스텔라 \$150(2)	노아 \$10(2)	김데레사 \$20(2)	유 베로니카 \$20(2)
	제콕 \$10(2)	김혜중 \$20(2)	이 엘리자벳 \$20(2)
		미영 로사 \$20(2)	이영란 \$40(2)
		민병형 \$20(2)	이정숙 \$20(2)
김애신 님(김애자 선생 동생) 특별기부금 \$2,000 고맙습니다.		카니 박 선생님 1년분 \$240 선납해주셨습니다. 최정임님 \$100 특별기부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3)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3)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정복(2) 조진영(2) 조화기(2) 지형근(3)
천선현(2) 최강석(2) 최경임(2) 최명선(2)
최순희(2) 최태도(2) 최효순(2) 최희환(2)
추정일(2) 태효원(2) 하정희(2) 한성진(2)
한혜숙(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 CUI XIANGY(2)
- ▶ 1,000원 문숙자(2)
 - ▶ 2,000원 김계순(덕양/1) 김미란(2)
 - ▶ 3,000원 강희춘(2)
 - ▼ 5,000원
-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곽안나(2)
곽환상(2) 구자근(2) 구재순(2) 김관중(3)
김대현(2) 김동수(1) 김명문(3) 김미영(2)
김선희(1) 김시흥(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1) 박병진(2)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설대호(2)
엄민애(2) 엄해영(2) 오형균(2) 유영희(당산1)
유해국(2) 이도하/한귀남(2) 이란희(2)
이승희(2) 이양훈(2) 이형남(2) 이호열(2)
임정리(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송이(2) 한진숙(2) 홍영일(2) 홍혜경(2)
- ▶ 10,000원
-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필구(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려원(2) 김말순(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제천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숙자(2) 김영지(2) 김완섭(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성(1)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2) 김자경(1)
- 김재환(2) 김중용/전정원(2) 김준형(2)
김진원(안산2) 김진현/이주원/이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식(2) 김혜정(2) 김화중(2)
노현욱(2) 도현정(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도(1)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재(2) 박일현(2)
박중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1) 박희정(2) 반중대(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재수(1)
배춘숙/김신근(2) 백은채(2) 봉근채(2)
서동범(2) 서동원(2) 서미란(2) 서상웅(2)
서영란(2) 석지민(1) 석지은(2)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신동혁(2)
신성아(2) 신영길(2) 신인아(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2)
양일섭(2) 오상만(2) 오성곤(2) 오용석(2)
오윤서(2) 윤남일(1) 이건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옥(2)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삼선(3) 이상일(2)
이상조(2) 이선용(1) 이성직(2) 이송균(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용현(1)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주희(은평2) 이중태(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임경민(2)
임동상(2) 임옥자/박병대(1) 임윤아(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정규성(2) 정미영/김경석(2) 정봉열(2)
- ▶ 15,000원 김병석(3) 현영돈(2)
 - ▼ 20,000원
-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2) 강순화(2) 강영철(2)
강희정(2) 김민주(울산3) 김수현(1) 김승태(2)
김영복(2) 김영자(1) 김용신(2) 김인숙(2) 김준희(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1) 백봉현(2) 백지웅(2) 서성민(2)
송현동(1) 신광재(2) 신금옥(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유시영(1)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의정부2) 이성재(2)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2) 임정순(2) 조윤식(2) 최재명(1)
한덕희(2) 한충길(1) 현승혜(2)
- ▶ 30,000원
- 강재철(2) 금재호(2) 김계영(2) 김은경(2) 김홍헌(2)
나효진(2)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고양2)
박용길(2) 오청근(2) 윤경자(무악2) 이관희(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2) 최경희(2)
- ▶ 35,000원 박중성(2)
 - ▶ 40,000원 서판임(2) 정병배(2)
 - ▼ 50,000원
- 고명지(2) 김익규/구자명(1) 김은영(2) 김은주(2)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2) 백진양(2) 신화용(2)
알티엑스포츠(2) 오명희(2) 윤지연(2) 이정숙(2)
이종우(2) 조홍준(2) 최해자(2)

▼ 10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휠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김윤희(2) 박지연(2) 안성환(2)
오정선(2) 유영욱(2) 이승수(2)

▶ 150,000원 채진석(2)

▶ 200,000원 오병철(2) 임인경/최홍식(2)

▶ 90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준혜, 2)

〈힐체어날개달기〉

▶ 5,000원 조성우(2)

▼ 10,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이명희(2) 김동현/김승기(1) 김명석(2)
김서주(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희(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1)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3) 신승엽(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오원희(2)
유은수(2) 이가영(2) 이광호(1)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1)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형재(2) 이혜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1)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목(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유경(2)
최윤지(2) 한정민(3)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 20,000원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선희(5)
김영숙(2) 김일생(2) 김효생(2) 민병임(2)
박정경(2) 오문영(2) 이상희(2) 이혜숙(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2) 장혜연(2)
전승환(2) 정경호(2)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정희(2) 최진숙(2) 한광희(2)

▼ 30,000원

(주)송지(2) 김선정(3) 김옥수(2) 김욱주(2)
이태자(2) 최진희(2)

▼ 50,000원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 100,000원

김삼복(2) 박형상(2) 최명숙(1, 통장)

▶ 120,000원 최명숙(3, CMS)

〈한벗동지〉

▼ 5,000원

고현우(2) 공아영(2) 권명현(2) 기효순(2)
김계자(2) 김민서(2) 김승빈(2) 김용락(2)
김인경(2) 김재열(2)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2)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인희(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윤재운(2)
이혜란(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최은미(2) 한경희(2)

▼ 10,000원

강순기(2) 강인수(2) 강훈선(2) 강현(2)
고유미(2) 곽복현(2) 곽영현/장형기(2)
곽우경(2) 구성모(2) 권오준(2) 권지연(2)
김가홍(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순(2)
김병희(일산2) 김미아(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상한(2) 김선옥(2)
김석겸(2) 김선향(2) 김선혜(1) 김성길(2)
김세연(2) 김연숙(2) 김연주(2) 김영승(2)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A(2) 김인곤(2)
김인순(2) 김인숙(2) 김정미(2) 김정석(2)
김정우(2) 김정화(2) 김중국(2) 김진수(2)
김철호(2) 김태연(2) 김하나(2) 김혜정(2)
김호영(2) 남성현(2) 노선이(2) 노신규(2)
노영진(2) 노형승(2) 류재남(2) 류호승(1)
박리라(2) 박일현(2) 박성준(2) 박은숙(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2)
박지원(2) 변기정(2) 서동연(2) 서민향(2)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서희주(2)
성다혜(2) 소기자(2) 송옥진(1) 송은숙(1)
송재하(2)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현석(2) 양현태(2) 여일구(2) 오광진(2)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우현하(1)
원현선(2) 유민화(2) 유윤미(2) 윤정애(2)
윤태훈(2) 이경진(2) 이경혜(2) 이규원(2)
이상수A(2) 이상수B(2) 이성림(1) 이소정(2)
이승순(2) 이승연(2) 이승재(2) 이연호(2)
이영금(2) 이영순(2) 이에인(2) 이에준(2)
이용식(2) 이용현(2) 이원준(2) 이원철(2)
이은서(2) 이재호(2) 이종욱(2) 이준복(2)
이지영(2) 이태환(2) 이해원(2)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주(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임호정(2) 장순주(2) 장승희(2) 장영숙(2)
장은정(2) 장철만(2) 전예스터(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영진(2)
완교(2) 정은숙(2) 정재영(2) 정진하(2)
제갈윤(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1)
채영심(2) 최경희(2) 최선영(2) 최순우(2)
최은미(서초2) 최종금(2) 추지훈(2) 하인석(2)
한지행(2) 허지원(2) 홍은정(2) 황진숙(2)

▼ 20,000원

강신순(2) 강희정(2) 김경란(2) 김도연(2)
김미진(2) 김봉주(2) 김성우(2) 김어은(2)
김희량(1) 박승환(2) 백진선(3) 송선미(2)
우영욱(2) 원석범(2)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연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2)
조기택(2) 정현주(2) 하복덕(2) 한재형(2)
한혜림(2) 황민규(2)

▼ 30,000원

강동룡(2) 권미정(1)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대균(2) 김범준(2) 김윤영(2)
김현도(2) 박희수(2) 성낙일(1) 오보균(2)
윤일삼(2) 이용기(1) 이지운(2) 임재창(2)
정숙용(2) 정은영(2) 정재연(2) 조길용(2)
조병훈(2) 채순옥(2) 채한석(2) 최갑석(2)
함미용(2) 황정현(2)

▶ 40,000원 백승열(2)

▼ 50,000원

곽형우(2) 권영수(2) 김간란(4) 김중호(2)
윤미선(2) 이태균(2) 조성윤(2) 조항미(2)
홍영미(2)

▼ 100,000원

박상봉(2) 열림교회(1) 유정자(2) 주지연(2)

▶ 150,000원 김장옥(1)

▼ 200,000원

김정훈(2) 서울서부지방검찰청(1) 하대주(2)

▶ 300,000원 이정은(1) 임창섭(1)

▶ 682,000원 서강어린이집(1)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 ▶ 5,000원 박현민(2)
- ▼ 10,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원주,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 ▼ 2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1) 박영숙(2)
손병산(3) 이강우(2)

- ▶ 3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 ▶ 50,000원 김혜원(2)
- ▶ 70,000원 최수진(2)
- ▼ 100,000원

-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5,000원 김운수(2)
- ▼ 10,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양영춘(3)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한정환(박종미)(2)

- ▶ 15,000원 김민정(1)
- ▼ 20,000원
김정훈(2) 김종범(2) 신효숙(2) 엄해경/김근일(1)

- ▼ 3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 ▼ 50,000원
신현관(2) 심진섭(2) 장안태(2) 홍지웅(2)

<미얀마어린이합창단>

- ▶ 3,000원 서지영(1) 성주일(2)
- ▼ 5,000원
강신선(1) 김갑성(2) 김세현(2) 민계숙(2)
민성숙(1) 성희진(1) 천만용(2)

- ▼ 10,000원
고재오(2) 김광기(2) 김양우(2) 김연식(2)
김정(2) 김현욱(1) 김현정(1) 김희정(1)
박순애(2) 백남호(2)
박향림/비영리단체참빛국제협회(2)
성일경(2) 심혜숙(2) 안재은(2) 오세현(2)

원영철(2) 유용운(2) 이성순(2) 정나원(2)
정역순(2) 조광희(2) 조천희(2) 최관용(2)
최광익(2) 한치만(2)

- ▶ 20,000원 서수진(2)
- ▶ 50,000원 주혜란(2)

<최준수 목사기금>

- ▶ 83,330원 조정복(2)
- ▶ 133,330원 조정복(3)

<기부금 보내는 계좌>

한벗재단 본부
국민 763601-04-002564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미얀마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미얀마어린이합창단
국민 763637-04-004336
최준수 목사 기금
국민 763601-04-175945
한벗동지
국민 577301-01-127870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실
국민 763601-04-078400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농협 351-1206-0089-03

※미얀마방정환 기금 기부회원 명단은 별도로
퍼내는 소식지에 게재했습니다.

통권 304호

펴낸날 : 2024년 9월 10일
펴낸이 : 한벗재단
주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전화 : 02)393-0661(대)
핸드폰 : 010-6747-0661
이메일 : 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 : www.hanbeot.org

임원/법인이사

백진양(대표) 장우형(부이사장), 권진동,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유시영, 채진석, 최명숙, 이승일
감사 : 강만희, 김훈

운영위원 : 임춘규(위원장), 조재선(부위원장),
강제숙, 김영균, 이승우, 장혜선, 청년한벗,
한동훈, 현승혜

부서별 연락번호

한벗동지 : 02)336-3100
주간보호실 : 02)713-5050
지축복지관 : 02)381-8938
한국휠체어지증본부 : 02)713-1005

재정보고 (24.6월~7월/2개월 합산)

단위 : 원

입 금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기부금	정기후원(재단)	13,540,000	인건비	급여, 보험, 퇴직금	10,941,922
	특별후원금	9,300,000	시설지원	동지,주간보호, 지축	18,615,000
	미국후원금	2,036,445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9,307,389
	동지/주간	6,385,000	업무비	접대비 등	2,304,900
	날개달기	5,710,000	간행비	소식지, 우송비	1,680,830
	방정환기금	1,662,000	공과금	보험료 등	2,395,270
	미얀마합창단기금	1,968,500	사업비	휠체어 날개달기	5,010,000
	최준수 기금	566,659		방정환기금	2,183,996
임대수입	원룸 관리비 등	6,656,689	장애인 피부미용	110,900	
공모수입	서울시,교보	11,184,498	게스트룸	38,640	
사업수입	장애인 해외여행 등	6,625,304	한벗투어	1,790,000	
차입금	차입금	10,500,000	휠체어 지원사업	2,900,000	
기타	잡수입	6,508,975	어린이 합창단	685,264	
			와상장애인 여행	8,284,498	
			보조기기 대여	300,000	
			기타 사업 지원	4,913,918	
			상환금	원금 이자	11,782,660
총 계		82,644,070	총 계	83,245,187	
			잔 액	-601,117	

※ 위 보고는 시설을 제외한 재단본부 재정사항입니다.



와상장애인
생애
첫 가족 여행

국내 최장의 길거리 모금



8월 땀별 속의 무대

지난 8월 15일, 서 있거만 해도 땀이 흐르는 섭씨 36도의 폭염. 남대문시장 골목 안 허름한 천막에서 트로트가 울린다. 장 보던 아줌마 50여 명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한다. 애처롭기 그지없는 가설무대지만 출연하는 연예인이 만만치 않다. 유명가수 박상민,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의 남궁옥분, 코미디언 이용식을 비롯해 걸그룹까지. 출연료 한 푼 없는 자선공연인데도 연신 땀을 흘리며 혼신 한다. 사회 보는 황기순 씨의 뺨에 땀이 하얗게 서려 있다.

22년째 거리 모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대문시장과 인천 월미도 공원에서 이틀씩, 4일 연속 강행한다. 무료출연 연예인 60명. 하지만 무대 옆에 놓은 모금함은 1/3도 안 찼다. 분명 모금액에 욕심내거나 가수들의 얼굴 알리기 공연이 아니다. 그러기엔 관객이 너무 적다. 그런데도 22년째 계속이다.



연예계의 엄명

이 거리 모금은 24년 전 황기순 씨가 시작했다. 인기 코미디언이던 그가 필리핀에서 도박으로 거지가 되어 돌아와 벌인 참회의 굿판이었다. 처음엔 추락한 인기를 만회하려는 '쇼' 러니 했다. 그러나 3년, 5년 넘게 이어지자 달라졌다. 연예계는 위선이 통하지 않는다. 연예인은 속절없는 대중의 인기에 살고 죽는 것 같지만, 정직과 성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서운 세계이다.

박수가 아니라 절을

자원봉사나 기부는 무엇보다 정직과 성실에서 나온다. 불행과 아픔에 대한 공감도 그렇다. 연예인은 화려해 보이지만 좌절이 일상인 이들이다. 야외무대의 초라함과 황기순 씨의 질곡은 저들의 낮익은 내면일 것이다. 무대 아래의 고단한 삶, 연예인들은 이들에게 노래를 바치는 것이 있다. 박수가 아니라 절을 하고 싶었다.

2013년부터 황기순 씨는 모금액으로 미얀마와 필리핀에 휠체어를 기증해왔다. 올 모금액의 일부는 한빛의 미얀마 유아차 기증에 기부한다.